

“ DRAM Trend-Monthly ”

IT/반도체/디스플레이 김운호
02) 6915-5656
unokim88@ibks.com

3Q25 DRAM: 전 제품군에 걸친 랠리, 물량·가격 동반 강세

DRAM 시장은 3Q25에 또 한 번 이례적으로 강한 분기를 기록했다. 출하량과 ASP 모두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번 상승 국면은 HBM뿐만 아니라 DDR5와 레거시 제품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AI 서버 수요, DDR4/LPDDR4(X) EOL(End of Life, 제품 단종) 전환 이후 빠듯해진 공급, 범용 DRAM 전반에서의 재고 재축적이 맞물리며,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강한 동반 회복 구간 중 하나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는 약 138억달러의 매출(QoQ +13%, YoY +54%)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이는 HBM3E 출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록적인 성장을 보였던 2Q25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12-Hi 적층 제품 믹스와 이미 확보된 백로그(backlog,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가동률을 사실상 풀캐파 수준으로 유지했고, 시장 점유율도 30% 중반에 근접한 수준을 지키며 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136억달러의 매출(QoQ +32%, YoY +27%)을 기록하며 전체 시장 성장률을 웃돌았다. HBM 비중 확대와 적극적인 재고 소진이 분기 실적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AI 최적화 서버 모듈로의 물량 배정을 늘리고 범용 DRAM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는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재편했다.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내려온 가운데 주요 서버 플랫폼에서 DDR5 채택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적 반등의 의미는 더욱 크다.

IBKS View

- 1) AI 서버 수요, 공급 부족, 재고 재축적이 맞물리며 이례적인 사이클 진입
- 2) HBM 주도에서 전 제품군이 동반하는 ‘풀 스펙트럼’ 국면으로의 전환
- 3) 상승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

Server

Mobile

PC



Micron은 매출 104억달러(QoQ +50%, YoY +81%)를 기록하며 또 한 번 견조한 분기를 보였고, 성장률 측면에서도 업계를 상회했다. HBM3E의 양산·출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DDR5 출하도 견고하게 유지한 데 더해, 채널 재고 재축적과 재고 회전 속도 개선이 겹치면서 매출 전반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 AI 중심 DRAM과 범용 DRAM 수요에 모두 균형 있게 노출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분기 동안 마진을 확대할 수 있었고, 한국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입지를 강화했다.

CXMT는 약 15억달러의 매출(QoQ +74%, YoY +146%)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견조한 중국 내 PC·모바일 수요에 더해,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버용 DDR5 DRAM을 처음으로 의미 있는 규모까지 출하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구조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는 CXMT의 제품 인증 역량과 생태계 내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생산이 여전히 레거시·미드레인지 노드에 집중돼 있음에도 중국이 메모리 공급망을 자급 가능한 구조로 구축하려는 야심을 보여준다.

Nanya 역시 레거시 제품군 상승 국면의 수혜를 입으며 6억 2,700만달러의 매출(QoQ +84%, YoY +149%)을 기록했다. DDR4와 LPDDR4(X) EOL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파급 수요가 가동률과 가격을 받쳐주었고, 공급이 타이트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선단 공정에서의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3Q25의 랠리는 HBM이 주도하던 상승 국면에서 전 제품군이 동반하는 ‘풀 스펙트럼’ 회복 국면으로 전환이 이뤄졌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주요 DRAM 카테고리 모두가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HBM과 DDR5에서의 제품 믹스 업그레이드, 재고 정상화, 레거시 제품 가격 회복이 맞물리면서, 두 개의 성장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례적인 ‘듀얼 엔진’ 사이클이 형성되었다.

단기 전망을 보면, AI 서버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PC·모바일 재고 재축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는 주요 업체들이 강한 가격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초점은 HBM 생산능력 확대와 범용 DRAM 수익성 간의 균형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며, 4Q25에도 제품 스택 전반에서 가격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 AI 추론 수요와 타이트한 공급이 이끄는 가속화된 가격 상승

4Q25 들어 DRAM 가격은 AI 추론 워크로드가 촉발한 폭넓은 수요 급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 이전 분기에는 모멘텀이 주로 HBM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와 OEM들이 더 큰 규모의 모델 배포와 추론 처리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모리 탑재 용량을 확대하면서, 특히 서버용 DDR5를 중심으로 범용 DRAM 수요가 본격적인 업사이클 국면에 들어선 상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4Q25 서버용 DDR5 DRAM의 기준 장기계약 가격은 이미 높아져 있던 수준에서 다시 전분기 대비 약 20% 추가 상승했다. 추가 물량에 대한 계약은 이 새로운 기준가에 더해 추가 프리미엄을 얻는 방식으로만 체결되고 있으며, 이는 가용 공급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급업체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단기적인 증설 여력이 제한돼 있어, 마진이 낮은 소비자용 DRAM보다는 고마진 서버용 제품에 생산을 우선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버용 DRAM에서 시작된 이 파급 효과는 이제 PC와 모바일 영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종 수요 자체는 아직 완전히 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버 DRAM과의 수익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업체들이 제품별 생산 비중을 조정하면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각 애플리케이션 고객사들은 물량 배정을 유지하기 위해 두 자릿수 수준의 가격 인상을 수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2026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급업체들은 이미 1Q26에 두 번째 라운드의 가격 인상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속되는 물량 배정 제약과 타이트한 공급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제한적인 웨이퍼 투입, 높은 HBM 가동률, 계속되는 AI 중심 수요가 맞물리면서 DRAM 제품군 전체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강화되고 있다. 요약하면, 현재의 시장 흐름은 단순한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가깝고, 내년까지 높은 가격과 수익성이 지속되는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표1. 주요 기업 분기별 실적 및 시장 점유율

(단위 :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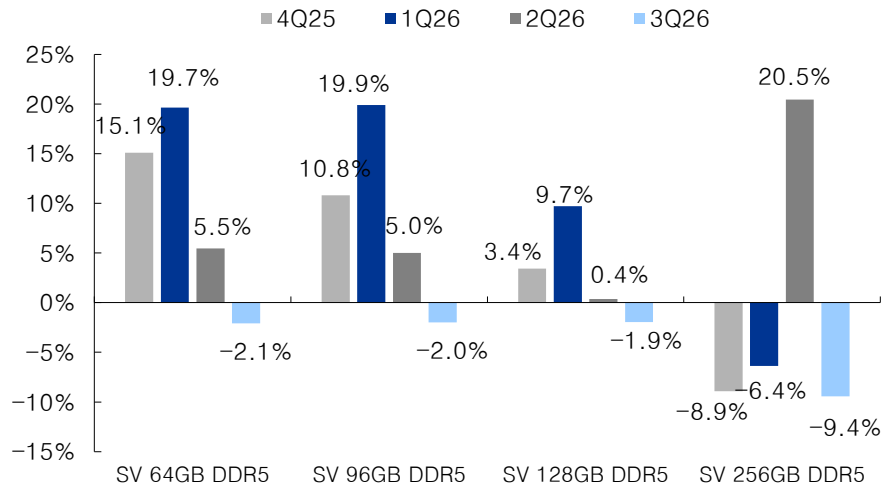
Rank	Company	3Q25 sales	3Q25 share	2Q25 sales	QoQ	3Q24 sales	YoY
1	SK hynix	13,757	34.1%	12,226	13%	8,940	54%
2	Samsung	13,620	33.7%	10,300	32%	10,765	27%
3	Micron	10,437	25.8%	6,950	50%	5,775	81%
4	CXMT	1,499	3.7%	860	74%	610	146%
5	Nanya	627	1.6%	341	84%	252	149%
6	Winbond	221	0.5%	181	22%	154	44%
7	Elite	92	0.2%	84	10%	88	5%
8	ISSI	50	0.1%	49	2%	47	6%
9	Etron	29	0.1%	20	45%	25	16%
10	Fidelix	4	0.0%	4	0%	4	0%
	Others	49	0.1%	45	9%	37	32%
Total		40,385		31,060	30%	26,697	51%

자료 : OMDIA, IBK투자증권

Key Chart

Server 64GB DDR5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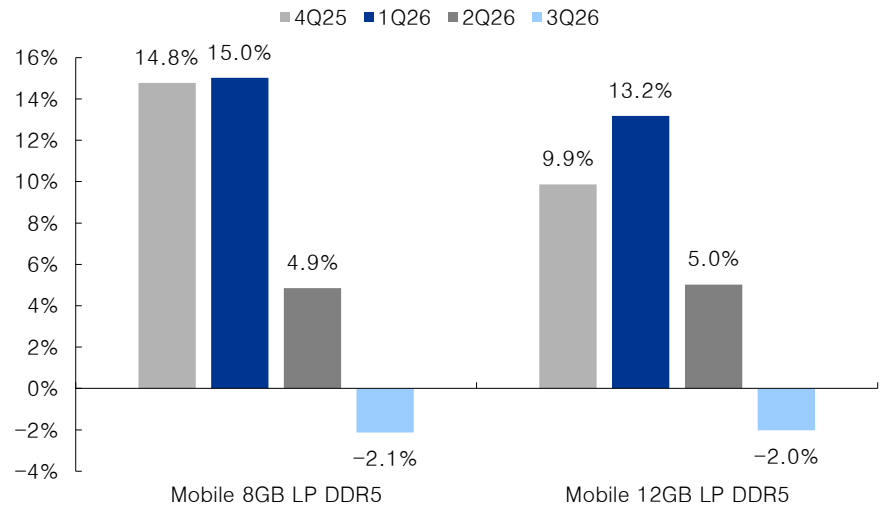
4Q25	15.1%
1Q26	19.7%
2Q26	5.5%
3Q26	-2.1%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Mobile 8GB DDR5 Qo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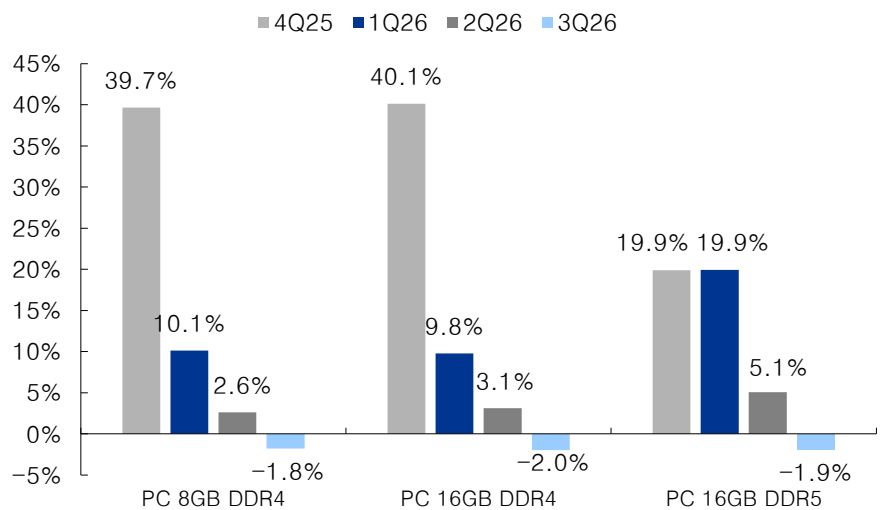
4Q25	14.8%
1Q26	15.0%
2Q26	4.9%
3Q26	-2.1%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PC 16GB DDR5 QoQ

4Q25	19.9%
1Q26	19.9%
2Q26	5.1%
3Q26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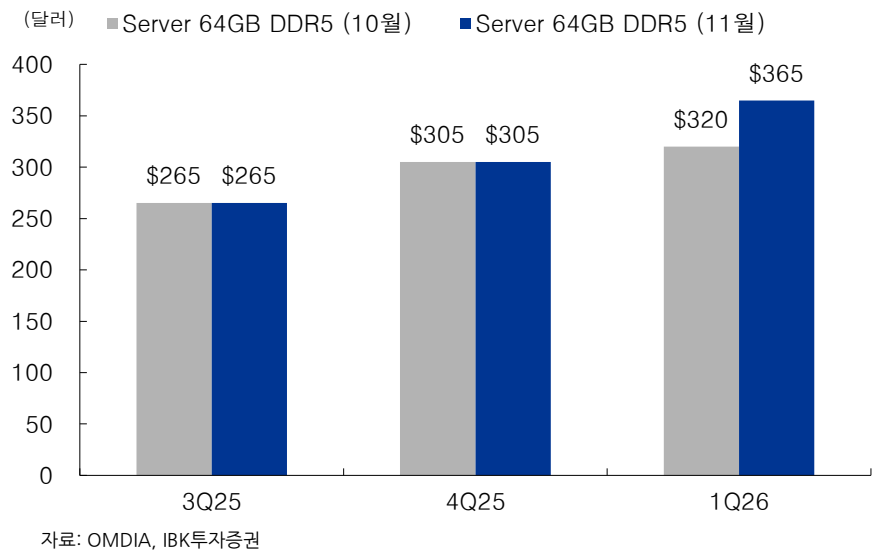


자료: OMDIA, IBK투자증권

Key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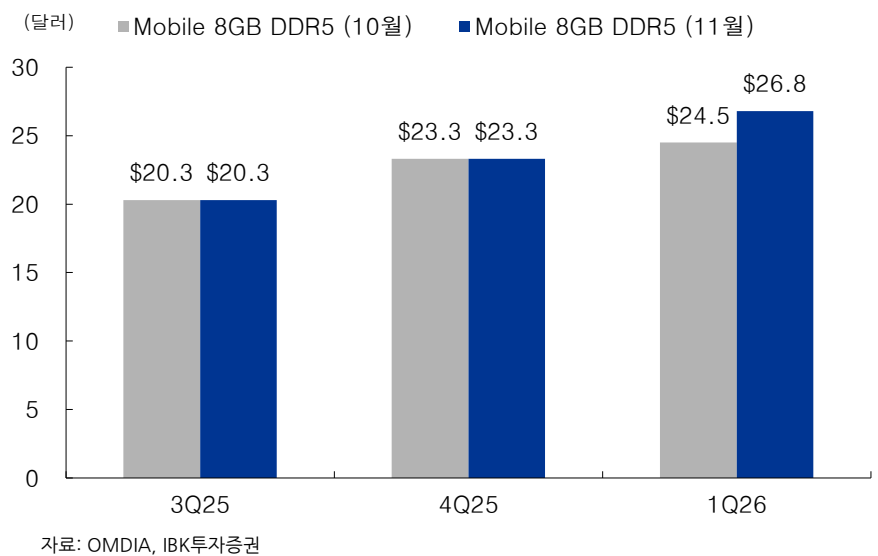
Server 64GB 추정치 변화 추이

3Q25	0.0%
4Q25	0.0%
1Q26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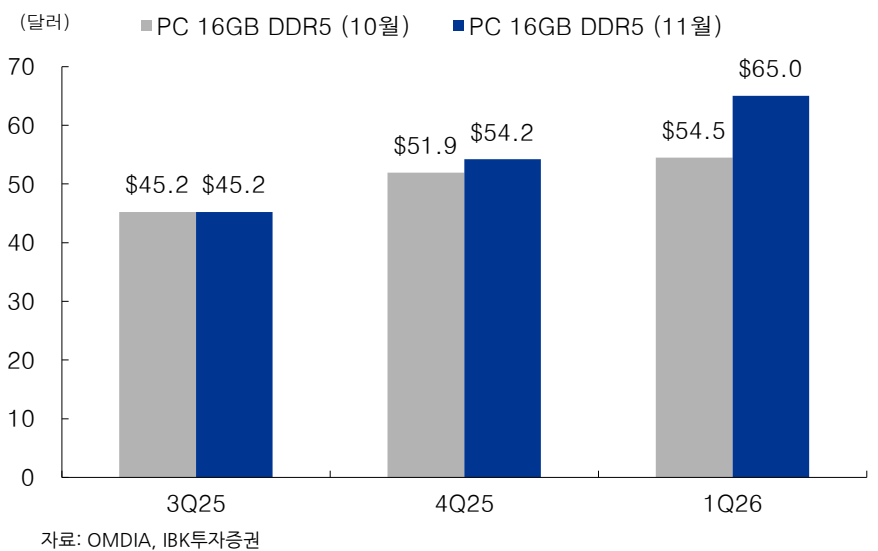
Mobile 8GB 추정치 변화 추이

3Q25	0.0%
4Q25	0.0%
1Q26	9.4%



PC 16GB 추정치 변화 추이

3Q25	0.0%
4Q25	4.4%
1Q26	19.3%



Key Chart

DRAM Pricing

(단위 : 달러)

PC (UDIMM)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8GB DDR4	\$24.7	\$34.5	\$38.0	\$39.0	\$38.3	\$37.2
16GB DDR4	\$48.1	\$67.4	\$74.0	\$76.3	\$74.8	\$72.5
16GB DDR5	\$45.2	\$54.2	\$65.0	\$68.3	\$67.0	\$65.0
Server (RDIMM)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32GB DDR4	\$131	\$183	\$192	\$196	\$192	\$186
64GB DDR5	\$265	\$305	\$365	\$385	\$377	\$365
96GB DDR5	\$435	\$482	\$578	\$607	\$595	\$577
128GB DDR5	\$725	\$750	\$823	\$826	\$810	\$785
256GB DDR5	\$2,580	\$2,350	\$2,200	\$2,650	\$2,400	\$2,200
Mobile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8GB LPDDR4	\$19.8	\$25.7	\$28.3	\$29.7	\$29.1	\$28.2
12GB LPDDR4	\$29.7	\$38.6	\$42.4	\$44.5	\$43.6	\$42.3
8GB LPDDR5	\$20.3	\$23.3	\$26.8	\$28.1	\$27.5	\$26.7
12GB LPDDR5	\$30.4	\$33.4	\$37.8	\$39.7	\$38.9	\$37.7
Components	3Q25	4Q25	1Q26	2Q26	3Q26	4Q26
2Gb DDR3	\$1.26	\$1.42	\$1.49	\$1.54	\$1.51	\$1.51
4Gb DDR3	\$1.50	\$1.70	\$1.78	\$1.83	\$1.80	\$1.80
4Gb DDR4	\$1.80	\$2.34	\$2.57	\$2.65	\$2.60	\$2.52
8Gb DDR4	\$3.00	\$4.20	\$4.62	\$4.75	\$4.65	\$4.52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